

9/25/22

설교 제목: 수전절의 의미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0 장 22-42 절

(요 10: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요 10: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절관주** 행 3:11

(요 10: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요 10: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요 10: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 10: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0:29)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요 10: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요 10: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절관주** 요 10:29

(요 10: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절관주** 시 82:6

(요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 10: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요 10:37)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요 10: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요 10:39)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요 10:40) 다시 요단 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요 10: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절관주** 요 1:27, 요 1:30, 요 1:34  
(요 10:42)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셨건만 유대교 지도자를 비롯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절에 기록된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10: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성경에서 시간적인 배경은 단순히 시기나 시간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곤 합니다.

예를 들면 본서 3 장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 오는 장면에서 저자 사도 요한은 때를 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했고 그런 연유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빌어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 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수전절이라고 밝힙니다.

수전절은 이방신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켜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유대력으로 기슬르월 25 일(태양력으로 12 월 25 일)에 시작하여 8 일 동안 지켜집니다.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3 대 절기(유월절(무교절) 맥추절(초실절 오순절) 초막절(장막절 수장절))가 아님에도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오늘날까지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지킵니다.

하누카(Hanukkah)는 히브리어로 봉헌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앵카이니아’, 더럽혀진 성전을 새롭고 깨끗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로는 고칠 수와 큰 집 전자를 사용하여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청소하고 수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BC 586 년 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사는 바벨론과는 달리 속국에 대해 유화 정책을 폈는데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BC 333 년 바사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C 323 년 알렉산더 대왕이 33 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죽게 되었고 그리스는 4 명의 장군에 의해 4 개의 나라로 분할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프톨레미 왕국은 속국들에 대해 비교적 독립적인 정책을 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독립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프톨레미 왕국이 BC 198 년 셀류쿠스 왕국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그 결과 유대인들은 셀류쿠스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셀류쿠스 왕국은 프톨레미 왕국과는 달리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펼치며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4 세의 통치 시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 세는 하나님 중심 사상인 히브리즘과는 정반대인 인간 중심 철학인 헬레니즘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아론 지파만이 대제사장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공물을 많이 바치는 친헬라파인 야손과 메네라우스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 유대와 사마리아를 헬레니즘화 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BC 167 년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였고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여러 도시에 보내어 할례 예식과 안식일 규례를 금하는 등의 칙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심지어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월 25 일마다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금기하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 제단에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에피파네스' 라고 불렀는데 이는 신이 현현했다는 뜻으로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고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이런 안티오쿠스 4 세의 성전 모독 행위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을 자극했고 급기야 BC 167 년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9km 정도 떨어진 모데인 지방에서 여호야립 반열의 제사장 맛다디아가 다섯 아들과 함께 이방 제단을 부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에서 특히 맛다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두각을 나타낸고로 그의 별명인 '쇠망치'라는 뜻의 '하 마카비'를 인용하여 이 반란을 '마카비 혁명'으로 이름지었습니다.

이 반란은 3 년 동안 지속되다가 극적으로 성공하여 마침내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마카비와 그와 함께 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헐어버리고 새 제단을 만들어 봉헌했습니다.

BC 164 년 기슬르월 25 일 성전을 빼앗긴지 정확하게 3 년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봉헌하며 8 일간의 성대한 봉헌 축제를 열었고 공적인 결의를 하여 포고령을 내리고 해마다 이 축제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시기를 겨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와 겹쳐 추울 뿐 아니라 먹구름으로 어둡습니다.

사도 요한은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고자 의도하였습니다.

또한 눈 앞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답하고 암울한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심기가 아주 불편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요 10: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요 10: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여지껏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사실 여부를 가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말씀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근원인 샘물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시며 그에 상응하는  
표적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은 당신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0: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요 10: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0: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0:29)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거짓 목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세지가 낭독되는 수전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수전절에는 에스겔 34 장의 메세지가 낭독됩니다.

(겔 34: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겔 34:3)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겔 34:4)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겔 34:5)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겔 34:6) 내 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멧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아까와 하지 않으시고 내어 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양인 우리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맹인인 유대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당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정죄하려 했습니다.

(요 10: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요 10: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요 10: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들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죽이고 싶었지만 그것은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신 말씀만 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몰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라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신분과 위치를 단 한 순간도 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종교 의식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야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이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더 강한 논리로 반박하십니다.

(요 10: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 10: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시편 82 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시 82: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율법에 말씀이 속에 있는 자는 모두 신이라고 했다고 하심으로 당신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신으로 승격시킨 후 말씀이 속에 있는 너희가 모두 신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고 논리를 전개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요 10:37)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요 10: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행하는 일이라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은 많은 무리들을 언급합니다.

(요 10:39)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요 10:40) 다시 요단 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요 10: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 10:42)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자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수전절에 또 다시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써 수전절을 무의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지키신 수전절의 의미를 바로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은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대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혼탁하고 더러워진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진가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이시간 우리 모두 성전인 각자의 몸을 돌아 봅시다.

더럽혀진 우리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청소하고 수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합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립시다.